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ISSN 2093-3118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TRADE FOCUS

2017년 5호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對美 무역전략과 시사점

2017년 2월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CONTENTS

[요 약]	i
I. 연구배경 및 목적	01
II. 최근 미국의 무역동향	02
1. 미국의 무역규모	02
2. 미국의 수입동향	03
3. 미국의 무역수지	06
III. 미국의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11
1. 미국의 對세계 가공단계별 수입	11
2. 미국의 對주요국 및 對韓 가공단계별 수입	13
IV.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미국의 무역구조	17
1. 미국과 주요국의 투입구조 변화 추이	17
2. 미국과 우리나라 무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8
V. 결론 및 시사점	24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동향분석실 김경훈 수석연구원

(☎ 02-6000-5156, besting@kita.net)

본 보고서는 <IV. 2. 미국과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부분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2017. 3. 30일 재작성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 세계에 보호무역주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TPP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배경에는 만성적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미국의 무역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 및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의 상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21.5%까지 증가하였고 對中 무역적자가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 일본, 우리나라 및 아시아 신흥국들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對韓 무역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어 미국 측이 이를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 미국의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전기전자제품, 섬유·의복류, 생활용품 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對美 흑자 규모가 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 또한 이들 산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어서 향후 수입규제 증가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5년 미국의 對세계 수입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면 중간재의 비중이 3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소비재 31.0%, 자본재 20.4%, 1차산품 7.4%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의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와 자본재가 높았으며 중간재는 소폭 감소하였다. 우리나라는 對美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3%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최근에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동 법안이 가공단계별로 對美 수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對美 소비재 수출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활용하여 각국의 투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미·일·중·독 5개국 중 미국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56.1%로 가장 높고 일본, 독일도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수출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하면 미국(87.2%), 중국(82.6%), 일본(78.9%)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해외조달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율이 63.3%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별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비교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 주력산업의 비중은 감소하여 제조업에 내재된 서비스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의 57.1%에 비해 크게 낮은 34.7%에 불과하여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분업구조가 심화,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제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지원, 고환율 등 양적 수출확대를 위한 단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개별 투입요소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 ②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③ 서비스와 제품의 융·복합 및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문

I. 연구배경 및 목적

■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미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며 TPP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및 관세부과(최대 45%) 등을 공약으로 제시함
- 취임 후에는 TPP 탈퇴를 선언하고 자동차 공장의 미국 내 이전을 압박하면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를 추진하는 등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걷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배경에는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하는 미국의 무역구조가 자리잡고 있음

-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주원인
- 자국 내 제조업을 육성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전망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무역동향 및 무역구조(부가가치 기준 포함)를 분석하여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및 우리나라 무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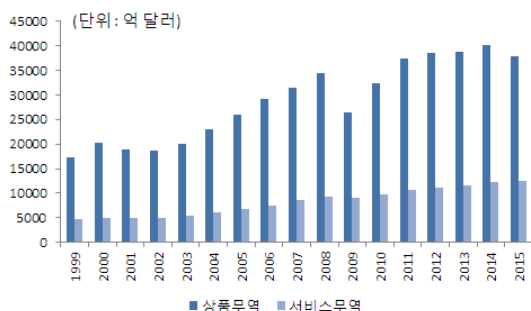
- 미국의 국가별, 품목별, 가공단계별 무역적자 추이와 미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對美 통상전략과 무역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Ⅱ. 최근 미국의 무역동향

1. 미국의 무역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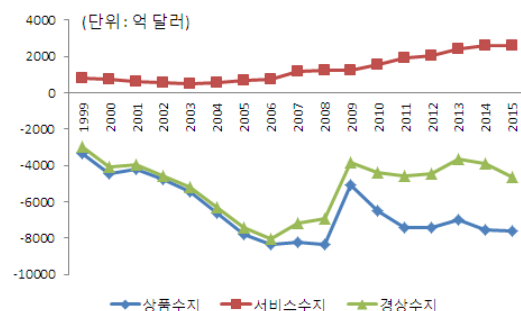
- 2015년 미국의 무역규모(상품 및 서비스무역 포함)는 세계 1위인 5.0조 달러로 전 세계 무역량의 12.0%, 미국 GDP의 27.8%에 각각 해당됨
- 2015년 미국의 상품무역 규모는 3.8조 달러로 전 세계 상품무역의 11.8%를 차지했으며,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2.4% 증가한 7,593억 달러임
 - 금융위기 이후 다시 증가하던 상품무역 규모가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2016년 또한 감소 추세가 지속
- 2015년 미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1.2조 달러로 전 세계 서비스무역의 12.6%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수지는 2,196억 흑자 기록
 - 미국의 상품수지는 적자인 반면 서비스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규모 추이>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미국의 상품, 서비스 및 경상수지 추이>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 미국의 수입동향

- 2015년 미국 수입은 전년대비 4.4% 감소한 2.2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10월간 수입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3.5% 감소한 1.8조 달러임
- 품목별로는 원유, 자동차, 휴대폰, 의약품, 컴퓨터 등이 미국의 주요 수입품이며 HS코드 6단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입의 23.8% 차지
 - 단일 수입품목 중 원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 내 셰일가스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입액이 감소

<미국의 품목별 수입액 순위>

(단위 : 억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1260.7	5.6	-49.0	819.9	4.5	-24.4
2	870323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974.0	4.3	16.1	877.5	4.8	11.2
3	870324	가솔린승용차(3000cc초과)	576.5	2.6	-4.2	404.0	2.2	-13.7
4	851712	무선전화기	527.1	2.4	-0.6	386.5	2.1	-9
5	300490	의약품(기타)	479.4	2.1	20.9	423.4	2.3	6.5
6	851762	무선통신기기	399.6	1.8	19.3	367.8	2.0	13.7
7	847130	휴대용 컴퓨터	391.5	1.7	-6.7	289.4	1.6	-7.7
8	271019	석유와 역청유(기타)	293.1	1.3	-40.0	179.2	1.0	-31.3
9	710239	다이아몬드	231.0	1.0	-4.0	198.9	1.1	0.2
10	271012	경질석유 및 조제품	196.8	0.9	-28.8	144.6	0.8	-17.8

주 : 비중은 미국의 상품 수입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미국 전체 수입의 21.5%를 차지하여 1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13.2%), 멕시코(13.1%), 일본(5.8%) 등이 그 뒤를 이었음(2015년 기준)

<미국의 국가별 수입액 순위>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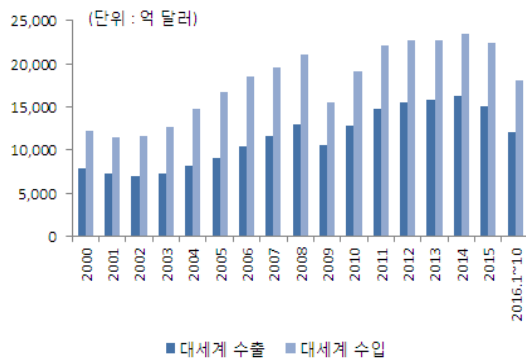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4818.8	21.5	3.3	3808.1	21.0	-5.3
2	캐나다	2951.9	13.2	-14.7	2303.6	12.7	-7.4
3	멕시코	2947.4	13.1	0.2	2452.6	13.5	-0.9
4	일본	1311.2	5.8	-2.1	1086.7	6.0	-0.4
5	독일	1241.4	5.5	0.8	950.1	5.2	-8.0
6	한국	718.3	3.2	3.2	586.5	3.2	-3.4
7	영국	578.1	2.6	7.0	449.1	2.5	-8.8
8	프랑스	476.4	2.1	1.3	395.0	2.2	0.7
9	인도	447.4	2.0	-1.1	390.1	2.2	1.5
10	이탈리아	440.0	2.0	4.6	371.9	2.1	2.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000년 이후 미국 수입에서 중국과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 온 반면 캐나다와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한국과 독일의 비중은 큰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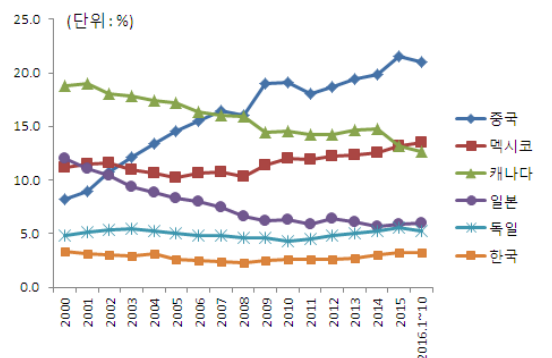
-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2000년 8.2%에서 2015년 21.5%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일본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5.8%로 하락

<미국의 對세계 수출 및 수입>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 수입시장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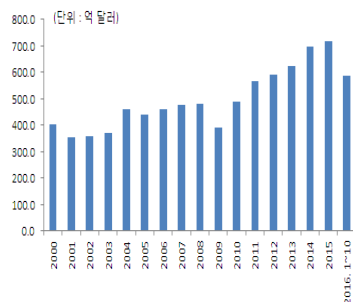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국의 對韓 수입은 2015년 718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6번째 수입 대상국이며, 미국 총 수입의 3.2%, 우리나라 총 수출의 13.3%를 각각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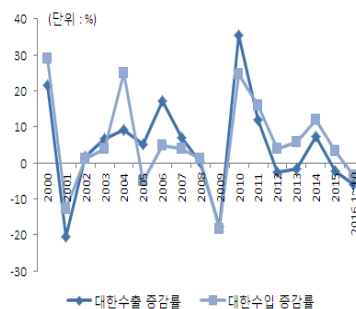
- 미국의 對韓 수입은 2009년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미국의 對세계 수입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 시현
- 2015년과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을 비교하면 양국 교역액은 153억 달러 증가했으며, FTA 체결 이후 對韓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계속 상회

<미국의 對韓 수입액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韓 수출 및 수입 증가율>



<미국의 對韓 및 對세계 수입 증가율>

(단위 : %)

연도	對한국	對세계
2009	-18.4	-25.8
2010	24.6	22.9
2011	15.9	15.4
2012	3.9	3.0
2013	5.7	-0.4
2014	11.9	3.5
2015	3.2	-4.4
2016, 1~10	-3.4	-3.5

■ 미국의 對韓 수입 주요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휴대폰, 컴퓨터 부품, 타이어, 냉장고 등이며, 특히 승용차(HS 870322, 870323, 870324)가 전체 對韓 수입 중 22.9%를 차지

- HS코드 6단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이 2015년 전체 수입 중 45.6%를 차지하여 미국의 對세계 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비율(23.8%)과 비교시 품목 집중도가 매우 높음

<미국의 對韓 주요 수입품목 현황>

(단위 : 억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5년			2016년 1~10월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870323	가솔린승용차(1500-3000cc)	115.5	16.1	13.7	92.4	15.8	-4.0
2	851712	무선전화기	64.0	8.9	-2.0	53.1	9.1	0.4
3	870324	가솔린승용차(3000cc초과)	35.2	4.9	25.8	21.4	3.6	-27.8
4	271019	석유와 역청유(기타)	26.1	3.6	-6.1	16.9	2.9	-27.2
5	870322	가솔린승용차(1000-1500cc)	20.8	2.9	27.6	20.7	3.5	19.9
6	847330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	18.5	2.6	1.7	10.8	1.8	-34.1
7	854239	전자직접회로 기타	13.1	1.8	-14.1	10.5	1.8	-8.6
8	870899	자동차 부품 기타	13.0	1.8	1.8	11.0	1.9	1.7
9	401110	자동차용 타이어	11.1	1.5	18.2	8.7	1.5	-4.6
10	841810	냉장고	10.3	1.4	3.9	8.5	1.5	-0.9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최근 3년간 미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으로는 승용차(1,000~1,500cc), 축전지, 기억장치(SSD), 화장품 등임

<최근 3년간 미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 현황>

(단위 : 억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최근 3년간 對韓 수입 증가율	2016.1~10간 對韓 수입 증가율	2015년 對韓 수입액
1	870390	승용자동차(기타)	310.2%	60.7%	1.3
2	850790	축전지 부분품	248.8%	59.2%	1.3
3	848120	유압 또는 공기압 전송용 밸브	198.1%	34.0%	1.4
4	870322	가솔린승용차(1,000-1,500cc)	122.9%	19.9%	20.8
5	330499	화장품 기타	51.5%	47.3%	1.3
6	853710	배전용 보드, 패널, 콘솔	33.9%	23.3%	2.6
7	841950	열교환기	28.6%	4.9%	1.5
8	852351	SSD(기억장치)	28.5%	42.2%	6.9
9	850131	전동기(750와트 이하)	28.4%	0.2%	1.1
10	851290	전기식 조명용, 신호용 기구(부분품)	25.6%	2.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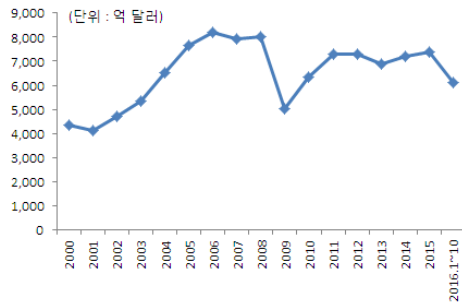
주 : 2016.1-10월간 수입 증가율이 음이 아니면서 최근 3년간(2013-2015년) 對韓 수입 증가율이 높은 품목 순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미국의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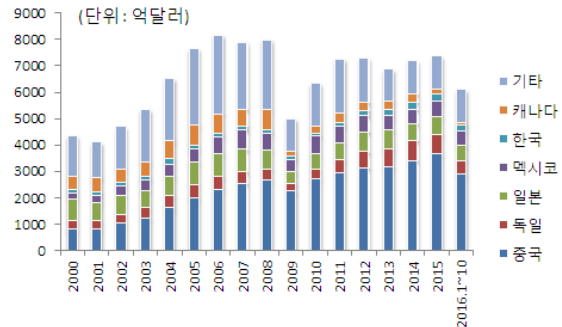
- 2015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7,37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10월간 적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0.8% 감소한 6,103억 달러 기록

<미국의 對세계 무역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주요국별 무역수지 적자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 상승하여 2015년 50%에 육박

-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캐나다와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멕시코, 독일, 한국의 비중은 증가
-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여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10년간 약 6배 증가

<미국의 주요국 대상 무역수지 적자 및 국별 비중 추이>

(단위 : 억 달러, %)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6.1~10	2887.8	47.3	530.1	8.7	72.8	1.2	565.1	9.3	538.9	8.8	240.7	3.9
2015	3656.9	49.6	583.6	7.9	151.7	2.1	686.5	9.3	741.9	10.1	283.3	3.8
2014	3426.3	47.5	538.3	7.5	339.4	4.7	669.7	9.3	737.4	10.2	250.6	3.5
2013	3184.2	46.3	543.0	7.9	318.3	4.6	733.9	10.7	672.0	9.8	206.7	3.0
2012	3151.0	43.2	616.4	8.4	314.0	4.3	764.4	10.5	599.1	8.2	166.1	2.3
2011	2953.9	40.6	648.1	8.9	340.8	4.7	632.4	8.7	495.4	6.8	132.6	1.8
2010	2730.4	43.0	663.2	10.4	283.8	4.5	600.8	9.5	343.0	5.4	100.5	1.6
2009	2268.3	45.3	475.4	9.5	201.8	4.0	447.7	8.9	279.5	5.6	106.0	2.1
2008	2663.3	33.3	643.8	8.0	746.4	9.3	726.7	9.1	428.2	5.4	132.7	1.7
2007	2562.7	32.4	742.6	9.4	646.7	8.2	828.0	10.5	447.1	5.7	128.6	1.6
2006	2325.5	28.4	640.9	7.8	731.6	8.9	884.4	10.8	477.5	5.8	133.7	1.6
2005	2016.3	26.3	501.5	6.5	764.5	10.0	826.8	10.8	506.6	6.6	161.1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적자 규모 및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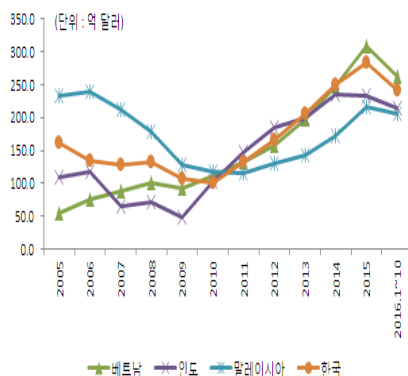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1~10월		
		금액	비중(%)	증감률(%)	금액	비중(%)	증감률(%)
1	중국	3656.9	49.6	6.7	2887.8	47.3	-5.8
2	독일	741.9	10.1	0.6	538.9	8.8	-12.3
3	일본	686.5	9.3	2.5	565.1	9.3	0.3
4	멕시코	583.6	7.9	8.4	530.1	8.7	9.0
5	베트남	309.2	4.2	24.4	263.3	4.3	1.1
6	아일랜드	304.1	4.1	16.0	289.8	4.7	19.1
7	한국	283.3	3.8	13.0	240.7	3.9	0.4
8	이탈리아	277.6	3.8	10.6	233.4	3.8	2.1
9	인도	232.1	3.1	-1.6	214.9	3.5	7.2
10	말레이시아	215.4	2.9	24.4	206.2	3.4	16.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아시아 신흥국 무역적자 추이> <미국의 對아시아 신흥국 무역적자 금액 및 비중>

(단위 : 억 달러, %)



연도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6.1~10	263.3	4.3	214.9	3.5	206.2	3.4	240.7	3.9
2015	309.2	4.2	232.1	3.1	215.4	2.9	283.3	3.8
2014	248.6	3.4	236	3.3	173.1	2.4	250.6	3.5
2013	196.4	2.9	199.5	2.9	142.8	2.1	206.7	3.0
2012	156.4	2.1	184.1	2.5	130.9	1.8	166.1	2.3
2011	131.8	1.8	146.5	2.0	115.3	1.6	132.6	1.8
2010	111.6	1.8	102.8	1.6	118.2	1.9	100.5	1.6
2009	91.8	1.8	47.1	0.9	128.8	2.6	106.0	2.1
2008	101.1	1.3	71.0	0.9	177.8	2.2	132.7	1.7
2007	87.3	1.1	64.3	0.8	211.1	2.7	128.6	1.6
2006	74.7	0.9	117.4	1.4	239.8	2.9	133.7	1.6
2005	54.4	0.7	108.5	1.4	232.5	3.0	161.1	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비중은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해당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HS 87)의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가 1,522억 달러로 가장 크며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20.6%를 차지(2015년 기준)

- 전기전자제품 1,475억(20.0%), 섬유·의복류 1,165억(15.8%), 생활용품 1,074억(14.6%) 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농수산물, 의료정밀기기, 반도체 등에서는 무역수지 흑자 기록

<2015년 품목별 미국의 對세계 및 對韓 무역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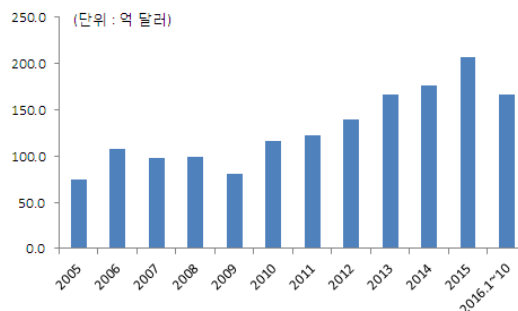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품목명	분류기준	對세계 무역수지	對韓 무역수지
1차산업			
농수산물	HS 01-24류	33.6	53.5
경공업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HS 39-43류	-102.4	-18.4
생활용품	HS 30, 33, 94, 95류	-1073.6	6.1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HS 50-64류	-1164.5	-6.6
중화학공업			
석유제품	HS 27류	-849.3	-16.9
화학공업제품	HS 28-38류	-316.3	29.8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HS 72-80류	-382.8	-34.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HS 87류	-1521.7	-203.9
의료, 정밀 및 광학기기	HS 90류	61.5	19.3
가전제품	HS 8415, 8418, 8450, 8528, 8529	-319.1	-17.3
반도체	HS 8541, 8542	8.9	8.7
무선통신기기	HS 8517	-666.9	-66.7
기계류	HS 84류(가전, 컴퓨터 제외)	-507.7	-33.6
전기전자제품	HS 85류(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제외)	-1474.5	-29.5
선박	HS 89류	4.0	0.6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세부 품목별로는 2015년 자동차(HS 8703)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1,119억 달러로, 그 중 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 등 주요 4개국에 대한 적자가 82.6%를 차지
- 다국적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겨냥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NA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멕시코로 생산 공장을 대거 이전하면서 미국 자동차의 對 멕시코 무역적자 규모가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
-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천명하면서 포드, GM, 도요타, BMW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미국 내로 생산기지를 옮길 것을 압박하고 있어 향후 미국 자동차의 對멕시코 무역적자는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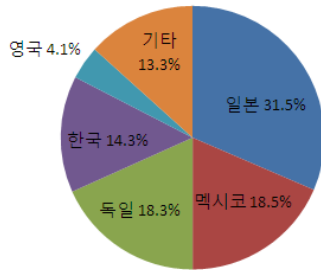
<미국 자동차(HS 8703)의 對멕시코 무역적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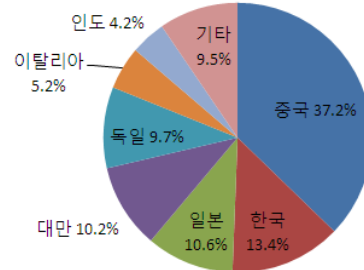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철강제품(HS72, 73)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285억 달러로, 그 중 중국의 비중이 37.2%로 가장 크고 우리나라는 13.4%로 2위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비중>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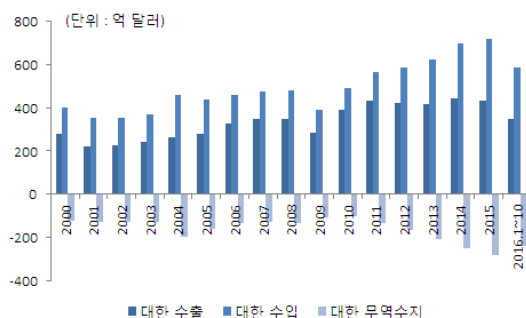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해 2017년 1월 현재 부과중인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374건 중 절반이 넘는 192건(51.3%)을 철강산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 철강 수입규제의 주요 대상국

* 2017년 1월 현재 부과중인 미국의 對韓 수입규제 24건 중 20건이 철강제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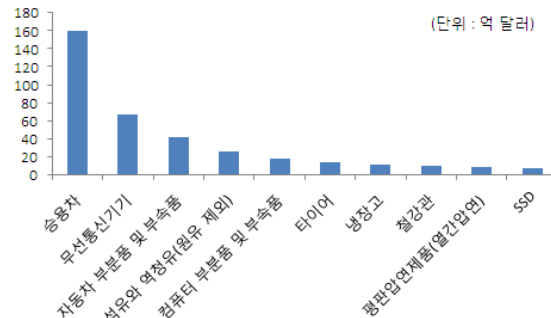
- 2015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283억 달러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對韓 무역적자의 비중은 3.8%임

<미국의 對韓 수출입과 무역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 상위 품목>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HS 4단위)로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 상위 20대 품목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컴퓨터 부품 및 기억장치(SSD), 타이어, 철강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포함됨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 적자 상위 20대 품목(HS 4단위)>

(단위 : 억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5년	2016.1~10월
1	8703	승용차	159.9	122.9
2	8517	무선통신기기	66.7	54.3
3	8708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	41.4	34.5
4	2710	석유와 역청유(원유 제외)	25.2	16.8
5	8473	컴퓨터 부분품 및 부속품	17.6	10.3
6	4011	타이어	13.7	11.0
7	8418	냉장고	11.0	9.1
8	7306	철강관	9.9	3.6
9	7208	평판압연제품(열간압연)	7.9	5.7
10	8523	SSD	6.5	7.7
11	8429	건설장비	6.5	3.0
12	7210	평판압연제품(도포, 도금)	6.0	3.8
13	8541	반도체	5.6	10.8
14	2902	환식탄화수소	5.1	2.5
15	8451	세탁기	4.8	3.5
16	8512	조명 및 신호용 전기기구	4.3	3.2
17	8409	엔진 부분품	4.0	3.6
18	8701	트랙터	3.6	3.0
19	8507	축전지	3.5	4.1
20	8402	증기보일러	3.0	0.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고 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중국, 멕시코, 일본 및 아시아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도 향후 자동차, 철강, 가전 등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 증가, 미국 내 공장이전 요구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전망

－ 자동차는 일본, 가전 및 철강제품은 중국과 함께 미국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주요 타깃이 될 우려

●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對韓 무역적자 폭도 증가하고 있어 미국 측이 이를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

* 다만 미국의 對韓 서비스 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미 FTA 체결 이후 서비스 흑자 폭이 2011년 69.2억 달러에서 2015년 93.9억 달러로 증가

Ⅲ. 미국의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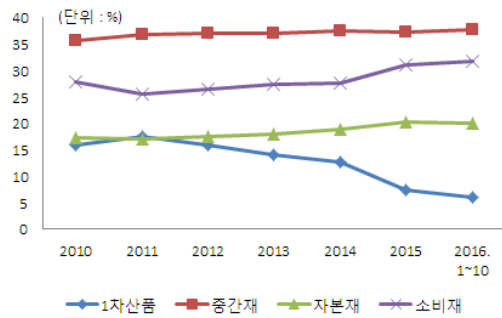
미국의 對세계, 對주요국별 수입구조를 비교하기 위해 UN BEC(Broad Economic Categories) 코드 분류에 따라 가공단계를 세분하여 분석

* BEC 분류 코드는 HS 6단위 기준 모든 수출입 품목을 대분류 7개, 세부분류 19개 분야로 구분 (상세 내용 첨부 참조)

1. 미국의 對세계 가공단계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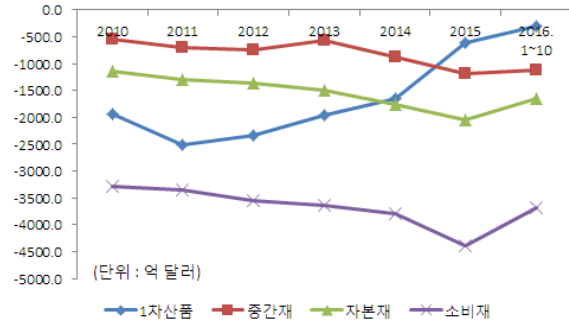
- 2015년 미국의 對세계 수입을 가공단계별로 구분하면 중간재의 비중이 37.4%(부품 및 부분품 16.2% 포함)로 가장 높고, 소비재 31.0%, 자본재 20.4%, 1차산품 7.4% 순
- 세부 가공단계별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운송장비 제외)의 수입 비중이 각각 18.4%, 18.0%로 가장 높음
- 최근 3년간(2013~2015)의 수입 증가율은 소비재(5.0%)와 자본재(4.7%)가 높았으며 중간재는 약보합세(-0.2%), 1차산품은 크게 감소(-22.8%)한 것으로 나타남
- 세부 품목별로는 가정용 식음료 제품(8.3%), 비내구성 소비재(7.9%) 등 소비재와 산업용 운송장비(15.9%)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 내구성 소비재 :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시 일시적으로 큰 지출을 필요로 하지만 이후에는 소액의 유지비만 필요(예. 가전제품, 안경, 시계 등. 자동차는 내구성 소비재의 일종이나 별도로 분류)
 - * 반내구성 소비재 :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예. 의류, 장식품, 섬유, 신발, 문구 등)
 - * 비내구성 소비재 : 직접 소비재, 즉 사용과 동시에 소멸되는 제품(예. 화장품, 의약품, 세제 등)
- 2015년 미국의 對세계 무역수지를 가공단계별로 구분하면 소비재 교역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4,387억 달러(전체 무역적자의 59.5%)로 가장 큰 비중
- 반면 1차 산품의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는 2011년 2,506억 달러(34.4%)에서 2015년 612억 달러(8.3%)로 축소

<미국의 對세계 가공단계별 수입 비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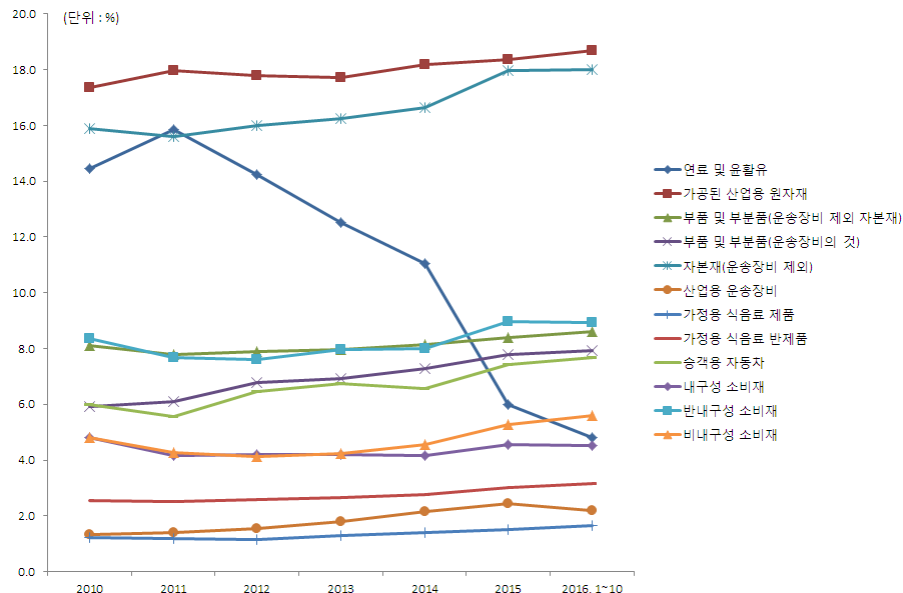
<미국의 對세계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세부 가공단계별로는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772억), 반내구성 소비재(1,643억), 승객용 자동차(1,118억)의 적자 폭이 큼
- 최근 미국 시장에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비재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나, 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커서 통상압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근 3년간 소비재 중에서도 가정용 식음료(21.7%), 비내구성 소비재(16.0%) 등이 높은 무역적자 증가율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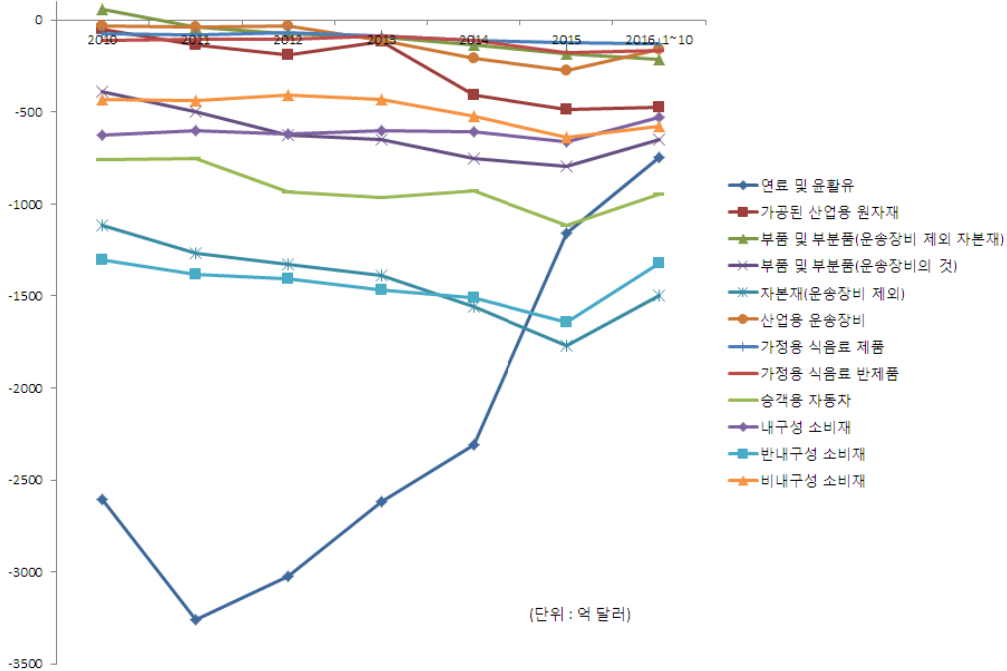
<미국의 對세계 세부 가공단계별 수입비율>



주 : BEC 19개 세부단계 분류 중 2015년 기준 수입비중이 1% 미만인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자동차 차체, 가공된 연료 및 운활유,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기타 미 분류제품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세계 세부 가공단계별 무역수지>



주 : BEC 19개 세부단계 분류 중 2015년 기준 무역수지가 흑자이거나 적자가 백억 달러 미만인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자동차 차체,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기타 미분류제품은 제외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미국의 對주요국 및 對韓 가공단계별 수입

■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가공단계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對美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6.3%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對美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 : 중국 27.4%, 일본 44.2%, 독일 37.8%

- 지난 30년간 글로벌 국제 분업의 확대로 중간재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신흥국의 임금 상승, 선진국의 리쇼어링 확산 등으로 중간재 무역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소비자재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세계 중간재 교역비중 추이(UN Comtrade, %) : ('11) 49.4 → ('15) 48.7

* 세계 소비자재 교역비중 추이(UN Comtrade, %) : ('11) 23.6 → ('15) 26.2

- 최근 3년간 미국의 對세계 수입증가율은 소비자재 5.0%, 자본재 4.7%, 중간재 -0.2%로 나타나 미국 시장에서도 소비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간재 수입은 정체

■ 우리나라의 對美 소비재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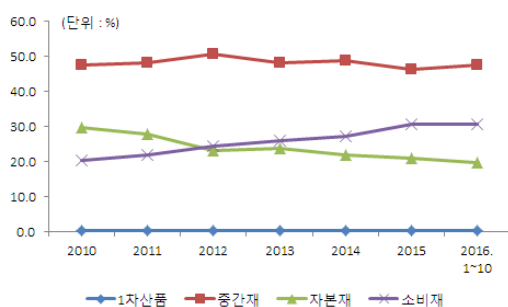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미국의 對韓 소비재 수입은 연평균 15.2% 증가하였으나, 2015년 미국의 對韓 수입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6%로 중국 35.7%, 일본 33.7%, 독일 36.1% 및 세계 평균 31.6%에 비해 아직 낮음
- 미국의 對세계 자본재 수입 비중 역시 2011년 17.0%에서 2015년 20.4%로 증가했으나 미국의 對韓 수입 중 자본재의 비중은 같은 기간 27.9%에서 21.0%로 오히려 감소

■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과 미국의 무역구조 변화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어 對美 무역구조의 개선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

- 최근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입법 움직임이 부상하면서, 향후 수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對美 수출 프레임이 다시 짜여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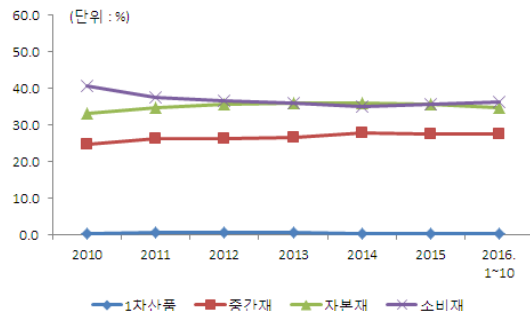
* 美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경조정세는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에 물리는 관세와 달리 수입 품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기업들의 해외 수입을 현재처럼 비용으로 처리해주지 않음으로써 수입 억제효과 발생. 반대로 해외 매출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장려하는 효과가 있음. 한편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국경조정세 도입 움직임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됨

<미국의 對한국 가공단계별 수입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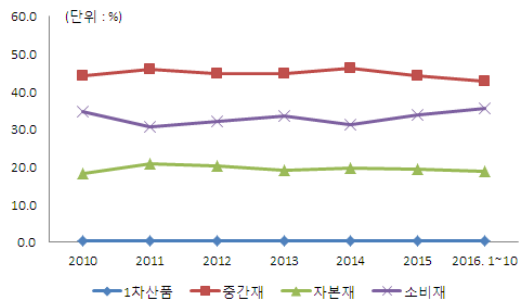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중국 가공단계별 수입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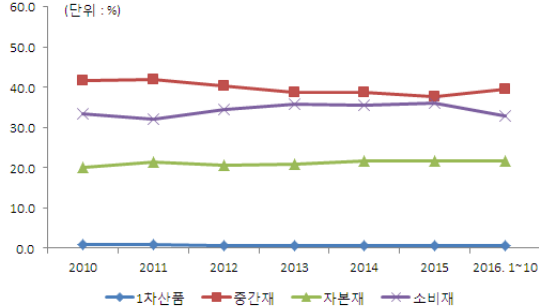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일본 가공단계별 수입비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미국의 對독일 가공단계별 수입비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5년 미국의 對주요국 가공단계별 수입구조>

(단위 : %)

가공단계	세부 가공단계	세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캐나다	멕시코
1차산품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6	0.0	0.0	0.0	0.3	1.1	0.4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9	0.1	0.3	0.2	0.4	1.8	0.5
	연료 및 윤활유	6.0	0.0	0.0	0.0	0.0	18.5	4.2
	합 계	7.4	0.1	0.3	0.2	0.7	21.4	5.1
중간재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4	0.0	0.0	0.0	0.1	0.6	0.3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8.4	17.9	13.5	13.6	16.7	23.7	13.1
	자동차 차체	0.0	0.0	0.0	0.0	0.0	0.0	0.0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0.2	0.0	0.0	0.0	0.1	1.3	0.0
	부품 및 부분품 (운송장비 제외 자본재)	8.4	11.8	9.6	13.6	10.1	3.4	7.7
	부품 및 부분품 (운송장비의 것)	7.8	12.5	4.2	16.5	10.6	7.0	14.9
	기타 중간재(BEC 32)	2.2	4.0	0.1	0.4	0.2	3.7	0.4
자본재	합 계	37.4	46.3	27.4	44.2	37.8	39.8	36.3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8.0	21.0	35.3	18.6	17.8	5.4	20.4
	산업용 운송장비	2.4	0.0	0.2	0.7	3.8	2.7	9.8
	합 계	20.4	21.0	35.5	19.2	21.6	8.2	30.3
소비재	가정용 식음료 제품	1.5	0.1	0.2	0.1	0.0	1.5	3.7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3.0	0.7	0.9	0.4	0.8	4.2	3.2
	승객용 자동차	7.4	24.1	0.1	27.3	21.4	14.4	8.0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3	0.0	0.4	1.1	0.3	0.2	0.2
	내구성 소비재	4.5	2.5	8.4	2.0	1.3	0.8	6.4
	반내구성 소비재	9.0	2.0	21.9	1.4	1.6	0.8	2.7
	비내구성 소비재	5.3	1.2	3.8	1.4	10.6	3.0	1.3
	합 계	31.0	30.6	35.7	33.7	36.1	24.8	25.4
기타 미분류		3.8	2.0	1.0	2.7	3.8	5.8	2.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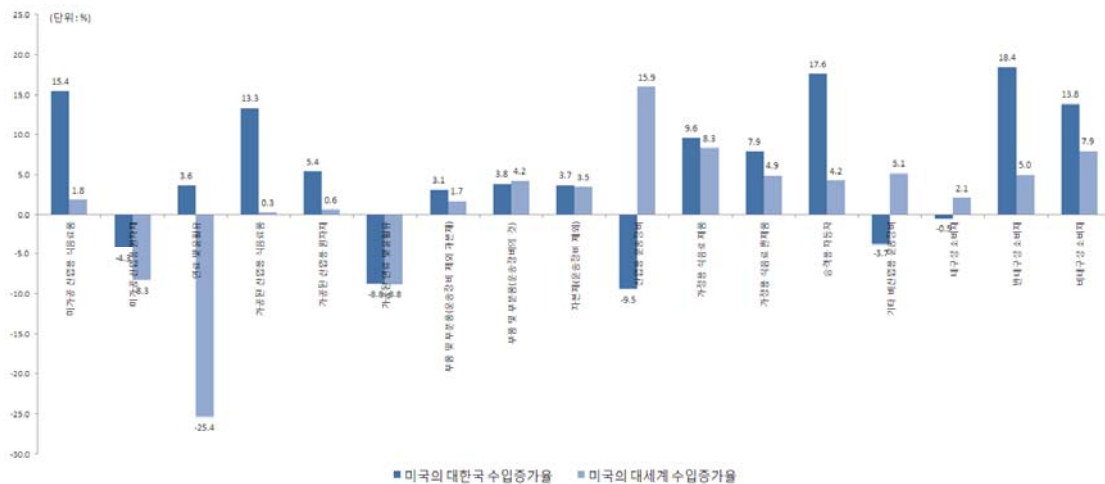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최근 3년간(2013~2015) 미국의 對韓 세부 가공단계별 수입 증가율을 對세계 증가율과 비교하면 식음료, 소비재, 자동차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 이들 품목은 미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이 미국의 對세계 수입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 시현

- 반내구성 소비재(18.4%), 승객용 자동차(17.6%),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15.4%), 비내구성 소비재(13.8%),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13.3%) 순으로 높은 연평균 증가율 기록
- 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우리나라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및 경쟁 심화로 對세계 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 기록

<최근 3년간(2013~2015년) 미국의 對韓 및 對세계 가공단계별 수입 증가율>



자료 : 한국무역협회

IV.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본 미국의 무역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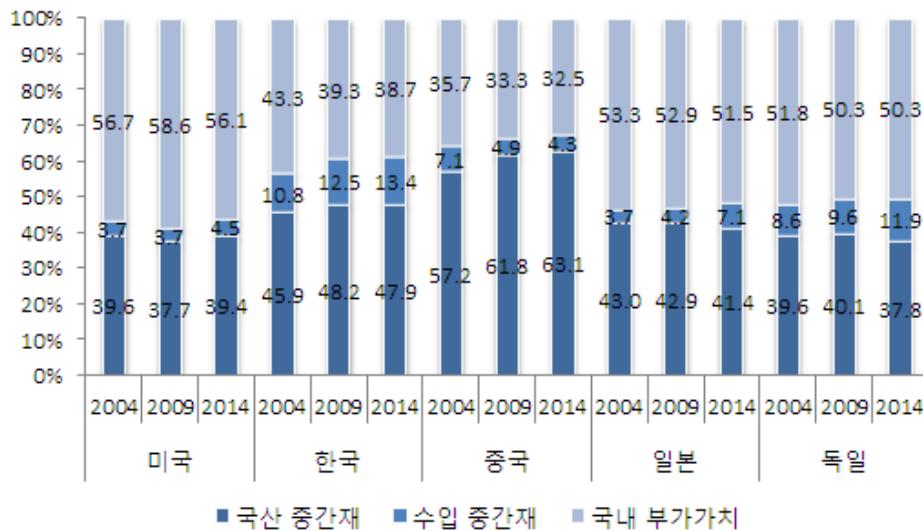
세계산업연관표(World Input Output Table, WIOT)를 활용하여 미국 및 주요국의 무역구조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

* OECD를 비롯, 유럽 12개 연구기관이 공동 작성하였으며 우리나라 등 총 43개국(56개 산업)을 포함. 현재 2014년도까지 발표

1. 미국과 주요국의 투입구조 변화 추이

- 국가별로 국산 중간재, 수입 중간재 및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총투입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면 각국의 투입구조를 살펴볼 수 있음
- 2004년부터 5년 단위로 투입구조의 변화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각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수입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은 감소
 - 한·미·일·중·독 5개국 중 미국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56.1%로 가장 높고 일본, 독일도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의 부가가치 비중은 30%대에 머물고 있음
 - 미국은 중간재보다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과 중국은 국내 부가가치에 비하여 중간재의 비중이 높은 편임
 -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숙이 참여하면서 수입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중국은 중간재 수입을 억제하면서 이를 자국 중간재로 대체
 -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에 비하여 중간재를 수입·가공하는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부가가치의 비중이 낮음
 - 우리나라 총생산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부가가치율 상승을 위한 산업구조의 개선이 시급

<주요국의 투입구조 변화 추이>



자료 : wiod.org

2. 미국과 우리나라 무역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부가가치의 이입과 이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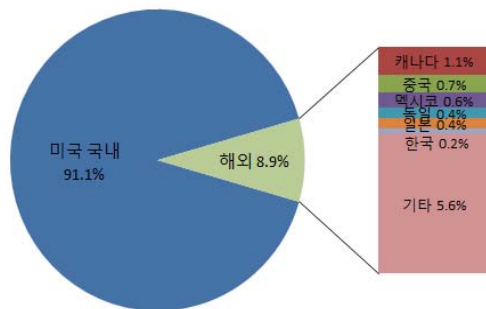
- 국가간 부가가치기준의 무역(Trade in Value Added, TiVA)은 특정국가의 최종 수요를 위하여 국가간 생산 및 수출입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로서, 해외 최종수요로 인해 자국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입과 자국의 최종수요로 인해 해외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이출로 정의¹⁾
-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이용하여 미국의 부가가치 이입과 이출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미국의 총 부가가치 중 해외로부터의 부가가치의 이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임
- 이는 해외 수요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중으로서 GDP의 해외 의존도로 해석될 수 있음
- 해외에서 미국으로 이입된 부가가치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캐나다가 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0.7%), 멕시코(0.6%), 독일(0.4%), 일본(0.4%)이며 우리나라는 0.2%로 낮은 수준임

1) 한국은행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2013.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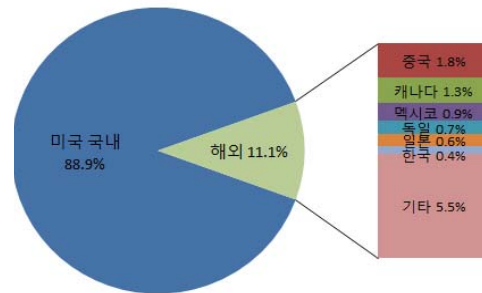
■ 미국의 최종 수요로 인해 창출되는 전 세계 부가가치 중 88.9%는 미국 내로 귀착되며 나머지 11.1%는 해외로 이출

- 미국의 최종 수요가 유발한 부가가치의 국가별 귀착 비중을 보면 중국이 1.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캐나다(1.3%), 멕시코(0.9%), 독일(0.7%), 일본(0.6%)이며 우리나라는 0.4% 차지

<해외로부터 미국에 이입된 부가가치의 국가별 비중> <미국 최종 수요의 국가별 부가가치 창출(부가가치 이출)>



자료 : wiod.org



자료 : wiod.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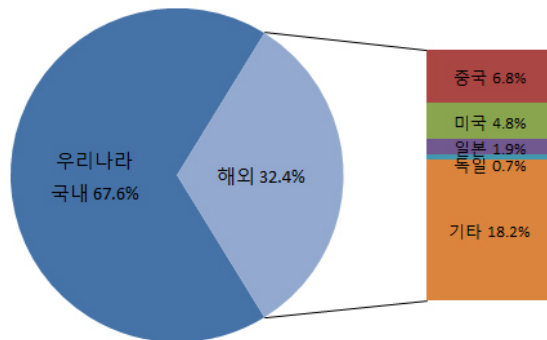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총 부가가치 중 해외로부터의 부가가치 이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4%로 미국(8.9%)보다 해외 부가가치 의존도가 높음

-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입된 부가가치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4.8%), 일본(1.9%), 독일(0.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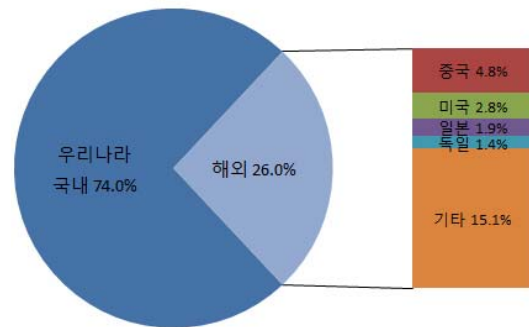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최종수요로 인해 전 세계에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74.0%는 우리나라로 귀속되고 나머지 26.0%는 해외로 이출

- 해외로 이출되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의 국가별 귀착 비중을 보면 중국이 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미국(2.8%), 일본(1.9%), 독일(1.4%) 순으로 나타남

<해외로부터 우리나라에 이입된 부가가치의 국가별 비중> <우리나라 최종 수요의 국가별 부가가치 창출>



자료 : wiod.org



자료 : wiod.org

(2) 최종재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액 비교

■ 미국이 최종재를 수출함으로써 전 세계에 유발하는 부가가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로 배분

- 2014년 미국의 최종재 수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중 미국 국내에 귀속되는 부가가치는 전체의 88.2%이며²⁾, 나머지는 캐나다(1.7%), 중국(1.5%), 일본(0.7%), 독일(0.6%), 한국(0.4%) 등으로 배분
- 반면 2014년 우리나라의 최종재 수출로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전체의 66.7%이며, 나머지는 중국(6.4%), 일본(3.2%), 미국(2.8%), 독일(1.3%), 기타(19.6%) 등으로 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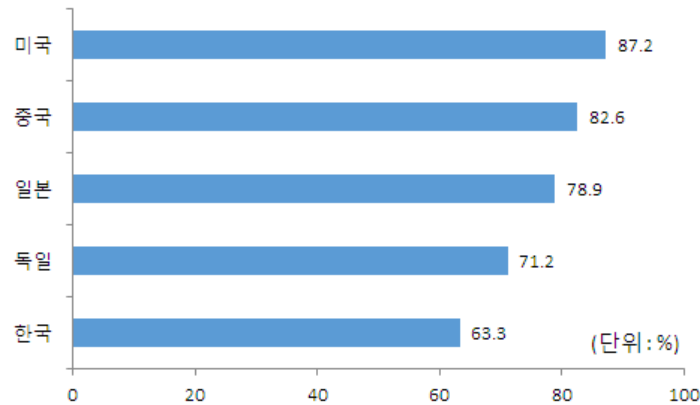
■ 2014년 각국 수출의 부가가치율³⁾을 비교하면 미국 87.2%, 중국 82.6%, 일본 78.9%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63.3%로 낮은 수준

- 우리나라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해외조달 비중이 높고 전기전자, 기계 등 조립가공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2) 자국의 최종재 수출이 자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 전 세계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3) 자국의 최종재 수출이 자국에 유발하는 부가가치 ÷ 자국의 최종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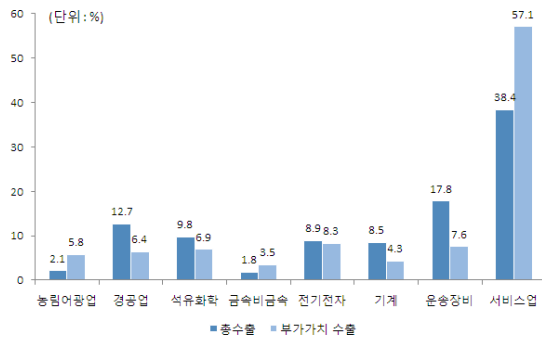
<2014년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자국 부가가치 유발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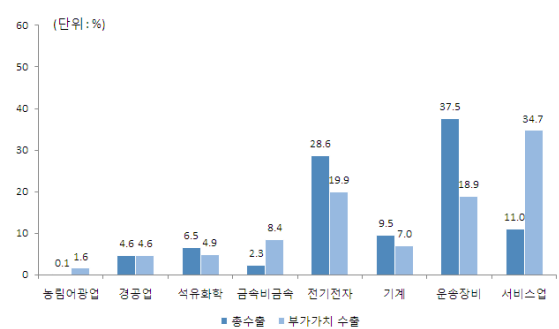
자료 : wiod.org

- 산업별로 총수출 대비 비중과 수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비교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전자, 기계, 운송장비 등 주력산업의 비중은 감소
- 총 수출과 부가가치 기준 수출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생산활동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국가간 분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산업의 상품을 구성하는 부가가치 중 상당부분이 다른 산업에서 창출되고 있기 때문
-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의 중간투입 형태로 간접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총 수출 통계로는 정확한 수출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제조업에 내재된 서비스가 수출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드러남
- 2014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의 57.1%에 비해 크게 낮은 34.7%에 불과하여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

<미국의 산업별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



<우리나라의 산업별 총수출 및 부가가치 수출의 비중>



주: 2014년 기준, 경공업에는 식음료, 섬유, 목재, 종이 및 기타 제조업이 포함되었고 서비스업에는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이 포함되었음

자료: wiod.org

(3) 총액 기준 무역수지와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⁴⁾

■ 국가간 교역을 총액으로 기록하는 기존 무역통계는 중간재 거래액이 중복 계상되므로 실제 각 국가에서 이뤄지는 생산활동의 가치를 반영한 부가가치 유발액과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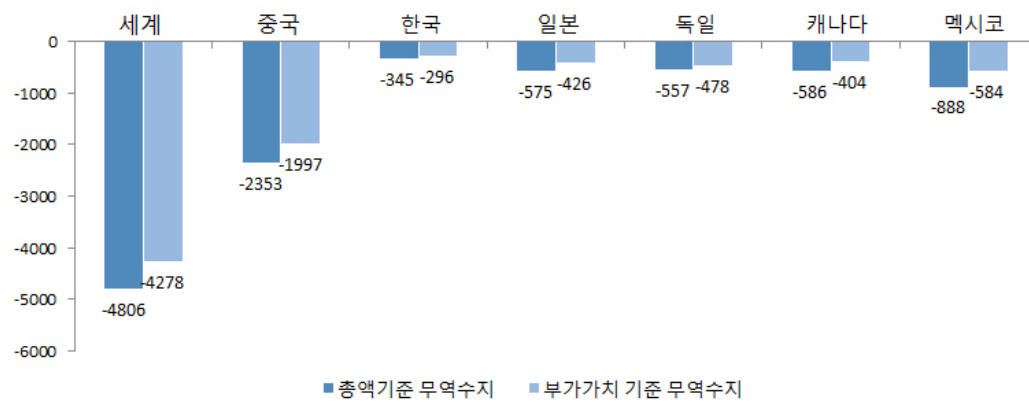
-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국제무역의 흐름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이 현실 경제에 보다 부합

■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해 미국의 주요 교역국별 무역수지를 총액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 결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무역수지를 측정할 경우 총액 기준 무역수지에 비해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대한 적자 폭이 모두 감소

-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한 미국의 對韓 무역수지는 29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총액 기준 무역수지 345억 달러에 비해 14.0% 감소
- 총액 기준 무역수지와 비교한 미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의 국별 감소폭은 멕시코(34.2%), 캐나다(31.0%), 일본(25.9%), 중국(15.1%), 한국 (14.0%), 세계(미국 제외, 11.0%) 순으로 나타남

4) 여기서의 무역수지란 세계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전 산업(상품 및 서비스 포함)의 수출과 수입의 차를 의미

<2014년 미국의 주요국별 총액기준 무역수지와 부가가치 기준 무역수지 비교>



V. 결론 및 시사점

- 향후 미국의 통상압력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고 對美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중국, 멕시코, 일본, 한국 및 아시아 신흥국들을 대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00년 이후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과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온 반면 캐나다와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한국과 독일의 비중은 소폭 증가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계속 상승하여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멕시코, 일본, 한국 및 아시아 신흥국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자동차, 철강, 가전 등 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 요구, 미국 내 공장이전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논리 개발 필요
-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가공단계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對美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소비재의 비중은 낮은 편임
- 미국 시장에서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對美 수출에서 소비재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
- 최근 미국의 공화당을 중심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국경조정세 입법 움직임이 부상하면서 향후 수입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對美 수출 프레임이 다시 짜여질 가능성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

-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활용하여 2004년, 2009년과 2014년의 생산요소 투입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총 생산에서 국내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
- 우리나라는 동 기간 동안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면서 수입 중간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국내 부가가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중국은 중간재 수입을 억제하면서 이를 자국 중간재로 대체
- 2014년 기준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의 이입률이 32.4%로 미국의 8.9%에 비해 크게 높을 뿐만 아니라 이출률도 26.0%로 미국(11.1%)보다 높아 중간재 교역을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국보다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수출의 부가가치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가가치율을 높이기 위한 수출품의 다변화 및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
- 제조업에 내재된 서비스는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에 비해 크게 낮아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
-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수출입 총액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
- 우리나라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①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 ②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③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화 및 관련 규제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첨부> 가공단계별 UN의 BEC분류 기준

3단계	5단계	BEC 코드	BEC 제품명
3-1 (1차 산품)	5-1 (1차 산품)	111 21 31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연료 및 윤활유
3-2 (중간재)	5-2 (중간재)	121 22 321 322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자동차 차체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5-3 (부품 및 부분품)	42 53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것 운송장비의 것
3-3 (최종재)	5-4 (자본재)	41 52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산업용 운송장비
	5-5 (소비재)	112 122 51 522 61 62 63	가정용 식음료 제품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승객용 자동차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내구성 소비재 반내구성 소비재 비내구성 소비재

[참고문헌]

- 윤우진, 〈한국과 주요 경제권의 국제 분업구조 변화와 시사점 -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산업연구원, 2015. 8.
- 이우기, 이인규, 홍영은,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우리나라의 Global Value Chain 분석〉, BOK 이슈노트 No.2013-4.
- 정성훈, 〈우리나라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정책적 시사점〉, KDI FOCUS 2015. 7.
-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해설〉, 2014.
- 한국은행 보도참고자료,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 분해 및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6. 12. 7.
- Stehrer, Robert, 〈Trade in Value Added and the Value Added in Trade〉, WIOD Working Paper 8, 2012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對美 무역전략과 시사점**

Trade Focus 2017년 5호

발행인 | 김인호

편집인 | 신승관

발행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 2017년 2월 22일

인쇄처 |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 2-97호